

# 「중량패션지원센터」 ‘17년도 지원사업 운영 간담회 회의록

1. 일 시 : 2017. 4. 14(금) 15:00 ~ 16:30

2. 장 소 : 「중량패션지원센터」 9층 회의실

3. 참 석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참석여부
지원기관	서울디자인재단	팀 장	최주원	참 석
		책 임	이찬기	참 석
		선 임	김수현	참 석
		선 임	오진실	참 석
유관기관	성북구소공인특화지원센터	이 사	제해기	참 석
		매니저	강희건	참 석
산업계	강북봉제산업발전협동조합	이 사	조정남	참 석
	중량패션봉제협동조합	감 사	김동석	참 석
	준어패럴	대 표	조홍연	참 석
	현대패션	대 표	정준희	참 석
수행기관	한국의류산업협회 중량패션지원센터	센터장	황길룡	참 석
		대 리	김형주	참 석

4. 개회 및 인사

○ 인사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서울디자인재단의 지원 아래 운영되고 있는 센터의 지원사업 운영방안 논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내빈소개 함. (중량패션지원센터 황길룡 센터장)

<별첨 참석자 명단 참조>

## 5. 보고사항

○ 중랑패션지원센터 지원사업 요약 설명

미리 작성하여 배포한 자료에 의거, 2016년도 센터가 추진했던 지원사  
개요와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설명함. (중  
랑패션지원센터 황길룡 센터장)

<사업개요>

- 사업명
- 사업목포
- 수행기관
- 사업기간
- 지원권역 등

<'17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2016년도 대비 사업 변경사항 관련

<별첨 회의자료 참조>

## 6. 운영간담회 주요내용

<작업환경 개선 지원사업 개선 방안>

○ 논의사항 설명

- 작업 환경개선 지원사업 관련하여 작년부터 권역별 할당해서 지원하고  
있음,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업체들을 지원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업체들이 있을 수 있어 권역별로  
수혜 사각지대 부분들을 해소하려고 생각중에 있음.
- 최초 수혜대상 우선 지원 관련하여 두 번 이상 수혜 받으시는 업체분들  
도 종종 생겨나고 있음. 최초 신청자가 수혜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음.

- 올해부터는 디자인재단에서 운영하는 각 센터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자부담 비율 차등적용 검토는 전년도까지 동일한 자부담율로 진행했는데, 작업환경 개선지원의 본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내부 의견들이 있어서 자부담율을 차등하되 재산 증식성 품목이 아닌 환경개선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공기질 환경개선 항목들에 대해서는 자부담율을 없애고 재산증식성 품목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율을 상향 조정해서 하는걸로 계획중에 있음을 설명함.
  - 자부담율 차등적용하는것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으며 유관기관인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도 동일하게 작업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원규모와 이런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음. (중량패션지원센터 황길룡 센터장)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원을 받아 최대 300만원까지 업체 13개 규모로 진행하고 있음. 예전에는 5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다 예산축소의 문제로 금액은 줄었음. 업체 자부담율은 없이 진행하며 지원품목의 경우에는 20가지 정도로 현재 중량센터와 유사함. (성북구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제해기 이사)
  - 공기질 환경개선 항목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있는 업체들이 아닌 지상에 있는 업체들은 어떤 지원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음. 업체에서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같은 품목도 가능한지. (중량패션봉제협동조합 김동석 감사)
  - 공기질 환경개선 항목은 공기청정기는 직접적으로 포함은 안 되어 있고 환풍기 환풍덕트 공조시설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것임. (중량패션지원센터 황길룡 센터장)
  - 지상에 있는 업체들은 환풍덕트시설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며 제대로 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큰 비용이 소요됨. 업체의 자부담율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전년도와 형평성도 고려하고 존속시키

는 것이 맞다고 봄. (중랑패션봉제협동조합 김동석 감사)

- 지상에 있는 업체에서 실효성의 문제도 있지만 환풍 덕트시설을 하게 될 경우 소음문제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 저속모터를 달아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공사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어 300만원의 예산이면 차라리 업체의 환경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는 페인트 도장이나 기계 구매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업체 입장으로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강북봉제산업발전협동조합 조정남 이사)
- 작업환경 개선 지원사업 관련하여 특정품목에 대해서 편중 되는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음. 봉제공장에 크게 필요성이 없는데도 이런 기회로 LED와 보일러의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봄. (중랑패션지원센터 황길룡 센터장)
- 봉제공장에서는 밝은 환경을 추구하기 때문에 LED같은 경우에는 필요에 의해서 다는 경우가 많을 것임, 본 공장에서도 환경개선으로 LED공사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LED를 계속해서 달고 있음. 보일러 같은 경우에도 청소 및 점검은 주기적으로 해야 하지만 계속해서 사용하는 업체들은 3년마다 보일러를 바꿔가면서 사용하는 것이 보통임. 다만 앞서 말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자부담율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중랑패션봉제협동조합 김동석 감사)
- 시공업체 전문성 검증 관련하여 전기공사 면허증의 유무부터 개인이 아닌 업체가 전기공사 등록이 되어서 공사를 시공해야 하는 것으로 인해 문제가 된 지역,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음. (중랑패션지원센터 황길룡 센터장)
- 작년도에 강북구청에서 진행한 강북구 업체들의 경우에는 대여섯개의 봉제공장에서 LED 공사를 진행 했었음. 4개 업체가 동일한 제품으로 하고 1개 업체가 다른 저가의 중국산 제품으로 공사를 진행함. 저가의 중국산 제품을 시공한 업체의 LED에 문제가 많아 업체와 교환이나 공사문제를 조율중에 있음. 전기공사 면허증의 유무보다 어떤 제품을 사용해 공사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으로 보임. (강북봉제산업발전협동조합 조정남 이사)

- 어떠한 믿을만한 업체가 공사했는지에 대해서도 중요할 것으로 보임. 신청기간이 긴 만큼, 여러 업체들의 견적을 받고 동의서를 받는 등 불필요한 공사와 역으로 공사업체가 봉제업체에 공사 필요성을 제안하는 것에 대해 업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늘려서 보완 하려고 생각중임. 이번년도에는 신청서에 세부견적을 넣을 수 있게 하려고 함. 주변업체들에게 이런 취지들에 대해서 잘 안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중랑패션지원센터 황길룡 센터장)
- 업체별로 1,000 ~ 2,000만원 예산을 지원하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이 있음. 재단에서 문의한 결과 시공사들에 대해서 공시를 해서 공사업체 자격이 있는 업체들을 알려주어서 문제를 예방한다고 들었음. 비슷한 문제를 겪은 적이 있어, 클린사업장에 대한 공장등록제도를 도입해 면허증이 있는 공사업체에서만 공사를 하라는 식으로 변경됨. 재단에서는 아직까지는 업체들에게 자율성을 주어서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문제가 안되면 괜찮은데 한두군데 업체의 문제로 민원이 들어가게 되면 더 꼼꼼히 할 수밖에 없음. 대신에 이런 공사업체의 공사들은 단가가 높기 때문에 300만원의 예산으로 업체들이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게 단점임. (서울디자인재단 최주원 팀장)
- 본 공장은 몇 년전 클린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적이 있음, 실제 사례로 겪은바, 공사금액이 비싸서 동일 금액 대비 큰 효과를 보기는 힘들었던 경우가 있었음. (중랑패션봉제협동조합 김동석 감사)
- 센터의 사업홍보방안에 대해서, 중랑센터가 맡은 동북권역에서는 도봉구와 노원구의 참여가 저조한 경향이 있음. 센터 나름의 현수막, 문자, 팩스 안내들을 해봤는데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양말공장이나 기계산업 제조공장들이 많아 참여가 저조한 것 같고 노원구도 지역협의체 같은 것들이 없어 지원사업에 대해 잘 모르는 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중랑패션지원센터 황길룡 센터장)
- 예전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도 지인을 통해 사업을 알게되고 지원을 받았던 경험이 있음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 80% 정도의 업체가 소규모인 3~4인으로 공장을 꾸려가며 시장물품 위주로 생산하다 보니 이런 지원사업에 대해 취약한 부분이 있음. (현대패션 정준희 대표)

- 홍보에 대해서는 많이 노력하겠음. 다만, 한정된 지원예산을 사용 안하고 그냥 놔두기엔 나름의 문제들이 있을것에 대비해 환경개선 진행 방법에 대해 재단과 계속 해 논의 중에 있으며, 진행하는 과정중에 미달되는 지역이 있으면 다른 지역에 지원을 하는것에 대해 검토중에 있음. (중랑패션지원센터 황길룡 센터장)
- 고려 됐으면 하는 부분으로, 중랑구의 봉제업체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음. 중랑지역이 혜택을 많이 받았다 하지만 서울시 전체로 놓고 보면 역차별적이 부분이 있음. (중랑패션봉제협동조합 김동석 감사)
- 특정지역에는 예산이 투입되어서 추가지원이 있는 경우를 업체들도 알다 보니 센터에서 봉제업체들에게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음. 업체수로 단순 비교하기에는 통계방법이 다르다보니 동일기준의 비율적인 부분으로 봐야하며 센터 권역중에는 중랑, 성북, 강북구가 지원구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임. (중랑패션지원센터 황길룡 센터장)
- 작년같은 경우에는 미달됐던 다른 지역은 신청하면 다 지원을 받았던 터라 신청이 몰렸던 중랑구 업체들이 수혜 못받는 것에 대한 불만도 있었음. (중랑패션봉제협동조합 김동석 감사)
- 자격조건이 안되는 분들이 지원된 것은 아니고 일정조건을 충족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추첨해서 지원했었음. 지원절차 및 지원금 지급 방안 관련하여 작년도에는 공사업체들에게 지원금을 지원해 줬는데 다른센터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공사업체가 여러군데서 공사를 하게되면 지급 방법에 대해 봉제업체들이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음. (중랑패션지원센터 황길룡 센터장)
- 지원받는 입장에서 소액결제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지금의 방법이 더 좋은 것 같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봉제공장에게 지급한 지원예산을 공사업체에게 주지 않고 사용해버린 경우도 있었다고 알고 있음. (중랑패션봉제협동조합 김동석 감사)
- 강북에서도 동일한 사례가 있었음. (강북봉제산업발전협동조합 조정남 이사)

- 작년 경우에는 봉제업체가 계산을 힘들어 한 부분도 있었고, 봉제업체가 전액을 먼저 선지급 하지 않게 되면서 공사의 주도권을 가져오기 힘든 면도 있었음. 공사를 진행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 후에 돈을 지급하는 것이 보통인데, 현재 방법으로는 봉제업체에서 일부를 내고 나머지 센터에서 일괄로 지급 하다보니 A/S 유지보수 부분에서 취약한 부분이 있었음. 각 방법별로 입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이런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음. (서울디자인재단 이찬기 책임)
- 봉제업체들이 직접 사용하고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는것에 대해서 지원금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장 스스로 관심이 커져야 할 것 같음. 본인도 지금의 방법이 좋다고 생각함. (중랑패션봉제협동조합 김동석 감사)
- 봉제공장에서 공사업체에서 공사비를 다 지급했다는 서류를 받고 공장으로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서울디자인재단 최주원 팀장)
- 예전에 그런 방법을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 공사업체에서 돈을 받았다는 세금계산서를 영수로 허위로 끊어주고 센터에서 지급받아서 주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 변경됐던 것으로 알고 있음. (중랑패션지원센터 황길룡 센터장)
- 진행하면서 자부담율이 없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논의되는 사항들을 듣고 보니 업체가 책임감을 가지게 되는것에 다시 고민을 하게 됨. 본 센터는 중기청 공통기준은 아니고, 처음에는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도 10% 자부담율을 부과하다가 소공인들의 300만원 지급도 부족하다는 의견들을 청취해서 중간에 없앴음. (성북구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제해기 이사)
- 지원금 지급절차에 대해 변화가 있으면 서류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함. 공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할시 봉제업체가 공사가 제대로 마무리 된 것에 동의하면 그때 지원금을 주는것에 대해서 동의서를 받고 진행하는 것은 어떠한지 알고 싶음. 진행상 문제가 없었다면 신청서에 문구를 넣는 것을 검토해보고 싶음. (서울디자인재단 이찬기 책임)

- 클린사업장이라던지 유사사업의 사례들을 검토해 보고 센터와 재단이랑 논의 해보도록 하겠음. (서울디자인재단 최주원 팀장)

### <봉제장비 임대 지원사업 개선 방안>

- 봉제장비 임대 지원사업을 진행할 시 업체당 120만원 한도내에서 장비를 임대하게끔 해드렸는데 소진 못하는 업체들이 있다보니 임대 및 노후장비 교체 장비 구매비용 지원을 하는것에 대해서 의견들을 듣고 싶음. 찬성하시다면 노후장비의 기준을 어느정도로 할지에 대해서 알고 싶음. (중앙패션지원센터 황길룡 센터장)
- 구매를 해주는것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선정기준의 확립이 필요할 것 같음. 임대를 하게되는 경우에는 봉제업체들은 특정작업을 하기위해 잠시 임대를 하는 경우가 보통인데 특종집 같은 경우에서 장비를 장기적으로 임대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음. (준어패럴 조홍연 대표)
- 실제로 필요해서 장비를 빌리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예산 지원을 받기위해 필요하지 않은 장비를 임대업체와 단합해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음. 구매지원이 실제 장비가 필요한 봉제업체들에게 효용성이 높을 것 같다고 생각함. (강북봉제산업발전협동조합 조정남 이사)
- 노후 봉제장비의 소음을 방지하는 서브모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서울디자인재단 최주원 팀장)
- 신식장비에는 달려서 나오고 노후장비에 장착시 하나당 국산으로 20 ~ 3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준어패럴 조홍연 대표)
- 재단에서는 작업환경 개선 지원사업의 품목으로 서브모터를 넣었었음. 미싱 관련된 부분이라 서브모터를 장비 임대 지원사업 품목에 넣는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음. 장비 구입을 바로 도입하는 것은 재산증식성 항목에 속하는 부분이 있어 힘들겠지만 안되더라도 실태조사나 업체조사를 거쳐 차츰 서울시에 건의를 해보려고 함. 장비 구입의 도입은 힘든 부분이 있음. (서울디자인재단 최주원 팀장)



- 합리적인 부분은 봉제업체들이 찾아서 건의해 주셨으면 함. 기준 이상의 장비들을 구매, 교체 하게 되면 종사자들의 안전을 지킨다던지 생산능력의 향상이 된다는 것을 건의해야 시에서도 정책을 세울 때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음. (서울디자인재단 이찬기 책임)
- 올해는 서브모터의 교체를 도입해 장비임대 및 효율로 접근하고 내년도에는 장비 구매까지 지원해 줄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겠음. (서울디자인재단 최주원 팀장)
- 서브모터가 생산능력의 큰 향상을 주는 것이 아니지만 업체보다 종사자들이 원하는 경우가 많음. 장비에서 나오는 열기나 소음들을 줄여주고, 장비를 가동할 때 힘이 조금 덜 드는 부분이 있어서 라인작업 종사자들이 조금 더 쾌적하게 작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 (준어패럴 조홍연 대표)
- 다음 논의 사항으로 권역별 배분 같은 경우에는 장비임대 지원 사업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음. 다른지역과 달리 동북권역에서는 업체별 최대 120만원 한도까지 지원이 동일하게 가능하지만 한번에 120만원을 다 소진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필요할 때 장비를 임대하다 보니 업체별 120만원 한도를 보장하게 되면 장비임대 지원 업체수를 충족하고 임대를 못하게 되면 예산이 남는 경우가 있음. 예년에는 총 예산 한도내에서 선착순으로 사용하다보니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 올해 권역별 업체수 지원 기준을 지켜려다 보면 업체수는 충족되어서 추가 지원을 못해주는 상황에서 예산이 남는 경우가 생길수 있음. (중량패션지원센터 황길룡 센터장)
- '15년도 중량센터 권역별 구분이 없었을시 장비임대 지원을 받고자 가을쯤 연락했는데 예산이 소진돼 빌리지 못한 경험이 있음.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업체들은 구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함. (중량패션봉제협동조합 김동석 감사)
- 중량센터 권역을 분석해보면 3~6월 사이에 집중되고 나머지 기간에는 점점 신청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음. 신청한 업체들에게 공지를 미리 해서 기간이 지나면 권역별 지원을 해지 해준다던지 권역별 기준에 너무 엄매

이기 보다는 효율적인 지원을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음. (중랑패션지원센터 황길룡 센터장)

- 상시 지원을 위해 1~12월 임대할 수는 없는지. 사업의 연속성이 필요한 사업 같음. (중랑패션봉제협동조합 김동석 감사)
- 서울시 예산 회계기준에 의거 11월말, 12월에 사업을 끝내고 정산하는 부분들이 있어 어려움. 다만 이런 부분들이 있어 봉제업체들의 의견들을 취합하다 보니 장비 구매로까지 방법이 나온 것 임. (서울디자인재단 이찬기 책임)
- 성북구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는 올해 어느정도 규모로 장비임대 지원사업을 하는지 알고 싶음. (중랑패션지원센터 황길룡 센터장)
- 올해에는 10개사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음. (성북구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제해기 이사)
- 예산이나 목표를 정할 때 업체수를 한정해서 정한다는 것이 불만임. (중랑패션봉제협동조합 김동석 감사)
- 지원 규모 금액은 예산 산출의 기초 자료로 이해해주길 바람. 중랑센터 같은 경우에도 작년 40개사 지원이 목표였지만 실제로 지원업체 수는 더 많았음. (중랑패션지원센터 황길룡 센터장)
- 오늘 간담회에 나온 권역별 배분건 및 앞서 나온 의견들은 서울시와 의견을 조율해보도록 하겠음. (서울디자인재단 최주원 팀장)
- 장시간 간담회를 참석해주신 참석자 분들께 감사드리며, 간담회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음. (중랑패션지원센터 황길룡 센터장)

## 7. 폐 회

- 「중랑패션지원센터」 '17년도 지원사업 운영 간담회를 모두 마치고 16:30 폐회함.